

## '98년도 ICHD 국제학술발표회 참가기

김지희 (명지대학교 토목공학과 대학원)

'98년도 3rd ICHD(International Conference on Hydrodynamics) 국제학술발표회가 지난 10월 12에서 1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약 20개국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렸다.

필자는 12일부터 15일까지 3일동안 이 국제학술발표회에 참가했는데 학술발표회동안 오전 9:00~11:00에는 Yoshimi Goda, V. C. Patel, T. Y. Wu 와 같은 세계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하여 Keynote Presentations을 개최한 다음, 다섯 분야의 주제로 나누어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의 학술발표가 이루어졌다. Keynote Presentations의 주제와 5개로 나뉘어진 연구분야는 다음과 같다.

### Contents of Keynote Presentations

Modeling and computing nonlinear dispersive water waves

*Theodore Yaotsu Wu*

Physical and numerical modeling of flow in water-pump intakes

*V. C. Patel*

Perturbation analysis of nonlinear wave interactions in relatively shallow water

*Yoshimi Goda*

Coaxial liquid-gas jets: Instability and spray

formation

*E. J. Hopfinger*

Finite element method for the free surface hydrodynamics

*Kwang June Bai*

1) Session A :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2) Session B : *Coastal Engineering*

3) Session C : *Environmental Hydraulics and Water Resources*

4) Session D :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and Experimental Techniques*

5) Session E : *Fundamental Research in Hydrodynamics and Industrial Fluid Mechanics*

한 Session에 1시간 15분, 1편의 논문당 25분의 발표시간이 주어지고 15분간의 Coffee break 시간을 가져 발표시간에 못다한 토의를 연장하기도 하고 학문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서로 친분을 다지기도 하였다. 필자 또한 Coffee break나 식사시간을 통해 다른 학교 대학원생들과 간단한 소개와 서로 공부하는 분야에 대한 설명을 주고 받았다.

필자는 전공이 Coastal Engineering이므로 주로 Session B에 참가하였는데 참가자 각각이 열띤 참여 의식을 갖고 발표논문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열의를 갖고 학문에 임하는 자세를 엿보았다. 개인적으로 특

히 불규칙파의 해석에 관심이 있는지라 필자가 참고하는 서적의 저자이자 이 분야에 능통한 Yoshimi Goda를 만나서 잠시나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제학술 발표회에는 처음 참가해 본 필자는 미국, 일본, 중국, 영국을 비롯하여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유고슬라비아, 덴마크,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서로 공통된 연구분야에 관심을 갖고 발표회에 참여하여 연구주제를 놓고 발표·토의

하는데 열중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 길지 않은 3일동안이었지만 다른 여러 나라에서 먼 길을 온 많은 학자들로부터 전문을 넓힐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필자는 ICHD 국제학술발표회에 참가한 상당한 보람을 느낀다.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많은 대학원생들이 ICHD와 같은 국제학술회에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



물에 빠져도 주머니밖에 뜯 것 없다  
 몹시 가난하거나 돈이 한 푼도 없는 처지.

물이 맑으면 고기가 아니 논다  
 사람이 지나치게 결백하면 남이 따르지 않는다.

